

KIA 신바람 야구...광주가 '들썩'



KIA 타이거즈가 1위 행진 속에 구름 관중을 모으며 올 시즌 목표 관중인 78만 1200명(72경기)을 넘어 사상 첫 100만 관중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KIA는 지난 6일까지 26경기에 37만 2937명을 불러들이며 평균관중 1만 4344명을 기록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위 질주에 챔피언스필드 관중 만원·유니폼 등 판매도 '불티' 스포츠 문화관광의 중심 떠올라... 야구팬 1박2일 투어 인기

‘호랑이 군단’의 신바람 행진에 광주가 들썩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KIA 타이거즈는 지난 4월 14일 단독 1위로 치고 오른 뒤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승리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이거즈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1위 팀 경기를 보기 위한 팬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KIA는 지난 6일 현재 26경기에 37만 2937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며 올 시즌 목표 관중인 78만 1200명의 약 48%에 가까운 수치를 이미 채웠다. 평균관중은 1만 4344명으로 KIA의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인 77만 3499명(평균관중 1만 743명·2016년)과 목표 관중을 넘어 첫 100만 관중 돌파까지 노려보고 있다.
매진 기록 경신도 기대된다. KIA는 지난 2014년 ‘개장 효과’로 7차례 매진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벌써 5경기에서 2만

500석을 가득 채웠다.
KIA의 티켓 파워는 전국구다. 지난 4월 22일 KIA의 LG 원정 경기에서 잠실 구장의 올 시즌 첫 매진(2만 5000명)이 기록됐다. 고척 돛대 매진 경기의 주인공도 KIA였다. 5월 3일 넥센 원정경기에 1만 7000명을 끌어모은 KIA는 이를 연속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했다. 5월 14일 SK원정 경기의 2만 5000석도 모두 차는 등 KIA는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올 시즌 새로 선보인 유니폼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어센틱 유니폼의 경우 6일 현재 홈 1016벌, 원정 1584벌 등 총 2600장이 팔렸다. 지난해(953벌) 대비 272% 증가한 수치다. ‘판매왕’은 안치홍(380벌)이다. 안치홍의 유니폼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최형우(370벌), 양현종(290벌), 김선빈(200벌), 김주찬(187벌)이 뒤를 잇고 있다.

“TEAM 2020”을 내세운 구단의 노력도 한몫한다.
KIA는 지난 2015년 구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00만 관중 돌파 ▲20% 이상의 구단 가치 상승 ▲3번 이상 포스트시즌 진출 ▲문화를 통한 야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IA는 프리미엄 좌석 확대, 우승 엠블럼 설치, 어린이 놀이터·놀이방 조성 등을 하며 야구장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가꿔나가고 있다. 올 시즌에도 그물망 기동 20개 가운데 14개를 제거하고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사용 중인 고강도 섬유망으로 그물망을 교체해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또 새로 푸드 코트를 꾸미고 먹을거리도 다양화했다. 1위 행진 속 확충된 편의 시설까지 더해 많은 관중이 찾아 보니 5월 마지막 주말에 펼쳐진 롯데와의 경기에서 일회용 맥주컵이 동이나, 경기장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맥주캔 반입이 허용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야구에 문화 그리고 관광을 접목한 상품으로 타지역 팬들의 발길을 잡는다. 챔피언스필드 1층에 특별 전시관이 마련되어 야구에 문화가 더해졌다. 모네 전시회 이어 지금은 셀카 포토 스튜디오가 꾸며졌다. 차와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위치해 경기가 없는 날에도 야구장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야구장 입장 관중이 늘면서 전시회 방문객도 증가했다.
‘챔피언스 필드투어’도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와 함께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KIA는 ‘관광’ 개념까지 더해 하나투어와 손잡고 앞선 5기 투어는 서울에서 출발해 1913송정역시장, 양림동 펜션마을 등을 도는 1박2일 코스로 진행됐다.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야구. 여기에 ‘승리’라는 최고의 흥행 요소가 더해지면서 챔피언스필드를 중심으로 광주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화전당 ‘비정규직 뺏’

직원 160명 중 70명 월말 계약 만료... 7월 업무 공백 우려

정규직 정원 확대 시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꾸리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이 크게 슬렁이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160명 가운데 무려 70여 명이 이달 말 근로계약이 만료돼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7월 아시아문화원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전당 콘텐츠(전시·운영 프로그램 등)와 사업수행, 프로젝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다.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0개월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이른바 비정규직 직원이다. 직원들이 무더기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시아문화원 출범 당시 정부에서 정규직 직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은 탓이다. 문화전당은 애초 정부에 문화원 필수 인력으로 200여명을 요구했다. 결국, 문화전당은 정규직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자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문화원은 인력충원을 위해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7월 중 공채

합격자를 발표한 뒤 8월부터 신규인력을 운용할 방침이어서 7월 한 달 동안은 업무차질이 예상된다. 6월 계약만료되는 직원 상당수가 전시·프로젝트 운용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채시험 준비를 하는 등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원의 한 직원은 “계약만료되는 직원들로부터 업무인수 인계를 받고 있지만, 업무차질이나 공백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공무원 정원이 32명뿐이어서 계약직 전문인력까지 직원 18명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전당측은 최소 100여명 정원을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조직을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새정부에 문화전당 활성화를 공약한 만큼 정규직 인원을 늘려 근본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경화에 강경한 野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 여야 공방... 보고서 채택 관심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 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로 나선 7일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인사 청문 결과가 여야 협치를 근간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 초반 국정 운영의 순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정부위원회는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을 추궁하며 맹공을 가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엄호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안 된다며 후보자 전원 인준을 목표로 야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와대도 정부채널을 총 가동하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강경화·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며 8일 의원총회 등을 거친 후 입장을 명확히 정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미 인권외교 포기 5·18 불러 ▶6면
- 그림편지-김해성의 러시아 ▶18면
- 슈틸리케호 돌고돌아 도하로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사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신동업, 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화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